

安東金氏大宗會報

發行人：金泰亨
 編輯人：金命勳
 印刷人：宋載勳

發行處
 安東金氏大宗會
 서울시東大門區德壽1洞112-49
 電話：244-3717
 對替計座：010983-31-0513119
 郵便番號：130-091

大宗會長 六年間의 回顧錄



一、本人은 安東金氏大宗會監事職을 一九七二年부터 副會長職을 一九七八년부터 連任하다가 一九九〇年四月二十八日 大宗會長職에 就任하여 滿六년이 가까운 오늘까지

歷路에 里程標를 세웠고 墓所앞 祭壇들레에 花剛石을 다듬어 石柵을 設置하여서 높은 築臺로 造成된 祭壇에서 墜落할 念慮가 없도록 安全裝置가 만들어졌으며 忠烈公 할아버님의 神道碑閣들레에 設置한 石柵亦是 花剛石을 다듬어 墓所祭壇들레처럼 모두 優雅한 모습으로 謹嚴하게 돋보이는 施設物을 設置하였습니

三、檜谷洞竹州朴氏 할머님의 廢墟된 齋室 및 管理舍를 새롭게 改築하고 一九九四年 四月 清明節에는 할머님墓所의 祭壇을 陵洞과 같이 三百餘名의 子孫들이 時享參拜를 할 수 있도록 擴張하고 床石을 改安하여 整備하였으며 齋室 마당의 整然한 시멘트 包裝工事와 우물을 다시 設置하였습니다.

四、一九九二年 七月 安東市 綠轉面長權純甲氏를 비롯한 當局의 協助를 얻어 綠轉面竹松里 忠烈公墓所進路의 河川에 橋梁架設工事を 함으로써 省墓時享等 子孫들의 通行에 便利를 提供하였습니다.

五、一九九四年 七月에 英湖樓에 揭揚하였던 忠烈公 할아버님의 懸板이 없어진 자리에 다시 똑같은 懸板을 만들어 揭揚하고 後日을 爲하여 安東市廳公報課에 登錄하였습니다. 將次는 그곳 勿溪書院(主壁이 忠烈公 할아버님) 補修에 多少라도 支援할 것도 配慮하여야 할 問題라고 思料되는 바입니다.

六、陰八月十六日 忠烈公 할아버님의 忌日에 는 會長은 每年 會館에서 精誠껏 祭享을 올려 왔으며 會長在任 六年間을 繼續時享前일부터 忠烈公齋室에 내려가 各處에서 雲集한 祭官들과 宿食을 같이하여 親睦을 圖謀하고 그 祭官들의 宿泊에 不足한 寢具를 補充하였고 時享奉行은 大宗會에서 主管하는 祭禮秩序를 確立 하였으며 安東現地에 常任齋有司를 任命하고

陵洞 및 檜谷洞의 墓所와 影幀閣 齋閣을 巡察 하여 그 狀況을 記錄한 巡察日記를 兩齋室에 備置하였고 從來 二日에 걸쳐 奉行하던 陵洞과 檜谷洞의 時享을 本人이 會長就任以後는 陰十月九日午前九時부터 午後一時 사이에 奉行하여 當日로 歸家할 수 있도록 變更施行하므로써 參席祭官들의 數가 增加되어 大盛況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七、陵洞墓所祭壇擴張工事와 進入路石造階段築造를 하기 爲한 豫算은 理事會의 審議를 거치고 總會의 承認을 받아 執行한 것이고 그 以前부터 累積되어 온 會館貸保証金中 流用한 金二千七百餘萬원을 充當하기 爲하여 會長은 그 機會에 大宗會運營方針을 大幅改善하여 一九九四年부터는 有給制常任副會長制度를 없애고 從來職員들의 點心을 會館에서 炊事하여 提供하던 것을 廢止하는 등 諸般支出을 最大限 緊縮하여 執行하므로써 流用된 保証金을 當年の 決算에서 完全히 充當하였으며 그 後부터는 黑字運營을 하고 있어 大宗會運營에 何等 支障이 없고 餘裕있는 運營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多幸으로 生覺합니다. 그때부터는 常任副會長이든 會長이든 會務全般을 直接掌管하므로써 何等 支障없이 運營해 온 實情입니다.

八、檜谷洞竹州朴氏 할머님 位土番을 買收하여 時享奉行의 기틀을 튼튼하게 마련하였으며 位土番中 우리 名義로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을 特別措置法에 의하여 名義移轉登記를 畢하였으며 陵洞位土番中 十一다랑이를 三다랑이로 耕地整理를 하였습니다. 우리 大宗會는 陵洞과 檜谷洞 兩明堂에 할아버님 할머님의 萬年幽宅이 있고 守護管理하는 威風堂堂한 兩齋室과 埕地、田畓、林野等 基本財産이 이미 報導한 대로 充分히 確保되어 있으며 서울에는 埕地一一二坪과 四層建物建坪三〇三坪의 會館을 所有하고 있으며 이 賃貸料로 大宗會를 運營하고 있습니다.

九、大宗會事業으로 從來부터 說往說來하던 忠烈公傳記에 對하여는 大宗會에서 蒐集한 資料가 있고 大宗會報에 連載한 忠烈公 할아버님께서 日本征伐을 하신 事實에 對하여 日本에서 出版한 風濤等 參考書籍이 있으며 할아버님에 對한 研究를 한 史學家들도 있어 費用만 있으면 何時든지 請託하여 發刊할 수 있는 바 先決問題는 發刊에 所要되는 費用이므로 이 돈은 特志家들이 없는 限 大宗會經常費에서 每年 積立하고 目標額에 到達하면 바로 着手할

1996年度
第29回

定期總會 開催公告

一九九六年度 定期總會를 다음과 같이 開催코저 하오니 隣近宗親과 相互 連絡하시어 多數 參席하심을 要望합니다.

- 一、日時：一九九六年 五月 四日 土 午前 十一時
- 二、場所：孝昌公園白凡先生 墓庭 앞
- 三、會議案件

- ① 祝賀牌 授與
- ② 定款一部改正
- ③ 一九九五年度 決算報告
- ④ 一九九六年度 豫算審議
- ⑤ 任員改選의 件

- 四、參考事項
- 四月中에 開催할 總會를 場所가 屋外인고로 五月로 는 寸것임.

- 五、會費：壹萬五仟圓(通常會費 壹萬圓 總會費 五仟圓)
- 當日 晝食提供함.
- 一九九六年 四月 十一日
- 安東金氏大宗會

會長 金泰亨 白

(二面에 계속)

(지난호에서 계속)
② 1960-80년대
관련자들의 증언

백범 암살에 관한 진상 규명 요구는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린 1960년 4월 학생혁명 직후 폭발적으로 일어났다. 5월 24일 고정은훈은 군대에 있을 때 장은산으로부터 들은 이야기라며, 백범 암살 사건은 임병직 신성모의 흉계이고, 장은산 당시 포병사령관이 문봉제의 부하였던 안두희로 하여금 살해케 했으며, 장은산은 6.25 전쟁때 밀항하려다가 체포되어 사형집행을 기다리던 중 우사했다

白凡金九先生暗殺真相糾明 調查報告書

國會議員 姜信玉

고 폭로했다. 이어서 고정은훈은 암살사건에 이승만박사도 관련되어 있다고 증언하였다. 『세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1950.5.24, 5.26, 5.27』

6월 고정은훈에 이어 박동업은 「백범 김구 선생 참변 목격기」 「삼일통해 세면의 암살 시도를 생생하게 증언하였다. 고정은훈이 주로 장은산과 김지용을 핵심으로 지목하고 그 이상의 배후를 언급하였다. 박동업은 안두희 홍충만을 대표로 하는 암살 하수인들의 역할을 분명히 밝혔

고정은훈의 폭로와 박동업의 증언은 4월 학생혁명의 여파속에서 백범 암살사건을 이승만정권을 청산하는데 중요한 문제로 부각시켰고, 관련자들의 증언이 쇄도하였다. 1960년 8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 한달 정도 암살 당시 현병사령관 장은, 부사령관 전봉덕, 한독당 조직부장 김학규, 안두희를 심문한 특무대의 노엽대위, 전 포병부사령관이 기린대령, 안두희의 변호인 김종만, 포병사령부 김천근 중위의 부하 신복철, 독립운동가 김승학씨의 증언이 줄을 이었다. 8월의 증

언의 결과 암살사건의 기본 줄거리가 잡혔는데, 고위층연락처 김지용이 하고, 下手관리자는 홍충만이고, 장은산 포병사령관, 김창룡 특무대장, 체병덕 총참모장, 신성모 국방장관 등이 배후로 지목되었고, 나아가 김성주 살해사건과 장은산의 죽음에 백범 암살 사건과 관계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제기된 암살사건의 배후에서 문제는 이승만대통령의 관련 여부였다. 전봉덕은 사건을 보고 하러 경무대에 가니 「이박사가 이미 알고 있다」고 증언하였고 「서울인

韓國經濟 칼럼

士大夫를 기다리며

按廉使公19代孫 金在基

이文稿는 우리 金門의 在基宗親이 韓國經濟新聞에 칼럼을 실었기에 소개하며 按廉使公 19代孫 在基氏께서는 現在 韓國케이블 TV協會會長兼 韓國民俗시름協會會長으로 在職中이다. 또한 故 金在光 國會議員의 實弟이며 住宅銀行長을 歷任하였다. 옛날 「士大夫」라는 호칭이 있었다. 사대부란 문무 양반을 평민에 상대하여 일컫던 계급상의 호칭이다. 물론 이 말은 신분의 계급이 사라진 현대에 와서는 쓰이지 않지만 때에 따라 세태의 厚顔無恥함을 비유할 때, 신의와 의리, 정도지향의 명분이 빛을 잃고 있는 시대를 타이를 빌려오기도 한다. 사대부들은 나라를 유지하는데 있어 禮·

을 아는 염치가 없다면 정조를 더럽힌 여인네와 다를 바 없고, 부귀와 명예를 위해 신의를 한 순간에 던져버렸다 는 오명을 영원히 떨칠 수 없을 것이다. 부모가 실사 잘못했다 해서 그 부모에 대해 등을 돌리는 자식을 우리가 손가락질 하는 것처럼, 잠깐이 공명을 위해 두고두고 남겨야 할 삶의 덕목을 맛바꾸는 사람들을 우리는 외면할 수 밖에 없다. 아직 우리는 사대부들이 모습보다 소중하게 여겼던 점양과 염치를 숭상하여 보여주는 사람들, 신의를 버리지 않고 모든 것을 포기하겠나고 말할 수 있는 이를 위해 존경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고 싶은 것이

Table with 4 columns: 派姓名, 住所, 金額, 計. Lists names and amounts for a fund.

일신분』 1960.8.12, 김학규 역시 「이박사가 배후 음모자」라고 규정하였다. 『조선일보』 1960.8.25. 이틀보다 더 직접적인 언급은 김승학과 최대교의 증언이다. 김승학은 이박사를 자주 만나던 독립투사 최영호(崔榮鎬)가 찾아와서 「이박사 신성모 원용덕 등이 김구 선생 살해를 음모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라고 전해 들었다는 것이었다. 『서울일일신문』 1960.9.2. 한편 최대교는 영장발급등 사건의 처리과정에 이승만의 개인을 의심할 수 있는 얘기를 하였다. 4.19일주년을 이틀 앞둔 1961년 4월 17일 안두희는 김용희

에 의해 체포되었다. 김용희는 안두희를 서울지검에 넘겨주었지만, 법률상 구속할 수가 없어서 보호조치로 호텔생활을 하다가 석방되었다. 다만 안두희는 김용희에게 불특정 다수에게 넘겨지기 전에 김용희 앞에서 김구 선생 암살 경위에 대하여 자세한 진술을 해 놓고는 검찰에 넘겨져 자말자 태도를 바꾸어 단독 범행임을 주장했던 것이다. 그후 65년 12월 22일의 혈정년 판대영이 양구로 안두희를 찾아 암살의 배후를 밝힐 것을 요구하며 습격했다. 그때 안두희는 판대영에게 현병대 순찰과장 김병삼 대위도 배후였음을 밝혔다고 한다.

고 난 뒤 김지용으로부터 사례금을 받았음을 폭로하였다. 이미 1960년 하수인으로 부터 들은 암살사건의 개요를 정리한 바 있는 박동업은 홍충만의 폭로가 「진상과 같다」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안두희는 홍충만의 폭로가 사실 무근이며, 암살사건은 자신의 단독 범행임을 여전히 주장하였다. 한 언론사의 주선으로 「역사의 두 증인」은 「극적 대면」을 하였으나, 「이제는 진실을 말하도록」 권유하는 홍충만에게 안두희는 「나가지 않으면 폭행하겠다」고 응수하였다. 안두희는 『중앙일보』 1981년 12월 18일자 인터뷰기사에서 「백범 암살은 소문

보다 사연이 복잡하다. 며 최초로 배후가 있음을 시인하였다. 그러나 그가 김창룡의 도움으로 석방되었다는 지엽적인 사실만 밝힐 뿐 암살사건의 전모와 배후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다. 1987년 4월 권

중회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안두희를 습격하자 「암살자 안두희」와 「음정자 권중희」가 언론의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광복회」 등 사회단체들이 백범 암살에 관한 진상 규명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